지성
창조
봉사

한라춘추

THE HALLA TIMES

발행인:김성훈 주간:정무상 편집장:김소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전화: (064) 741-7552

2021년 04월 26일 제219호

잊지 말자, 기억 하자
진정한 봄으로 나아가자

대 학 부

<2면>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이 뭐예요?
- 사이버강의 전용 앱 탄생

<3면>
- 자기소개서 아직도 혼자서 힘들게 써?
-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 획 부

<4면>
-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제는 장소 불문?
- 동양인 인종차별 이대로 괜찮을까..

<5면>
- 제주 4.3사건 제73주기, 잊지 못할 제주의 역사

<6면>
- 광주가 미얀마에게

문 화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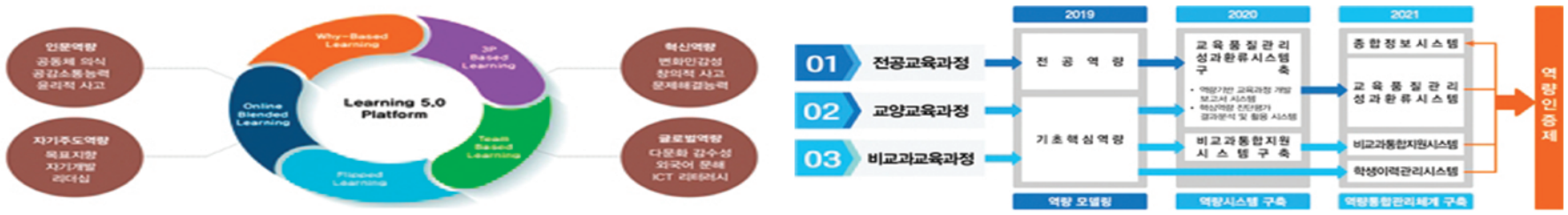
<7면>
- 이게 국내 브랜드라고?
- '탐나도'의 탐나는 이야기

<8면>
- 가족영화 '미나리'
- 내가 만우절에 말이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이 뭐예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혁신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제주한라대학교는 교육부의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2019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유형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다. 2021년까지 3년간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산학협력, 기타(지역사회 기여 및 글로벌)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며, 대학 전반 및 분야별 학과 특성화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Learning 5.0 기반 교육 혁신’을 통한 수요자 중심 핵심 역량교육 체제 구축



▲ [2019년 핵심역량 개발 → 2020년 Learning 5.0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교육품질 성과환류시스템 구축 → 2021년 역량인증제 활성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우리 대학 핵심역량인 인문역량, 혁신역량, 자기주도역량, 글로벌역량을 바탕으로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융 · 복합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를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Learning 5.0 기반 역량강화 교양/전공/비교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 · 배출하기 위한 ‘제주한라대학교 역량인증제’를 개발하였으며, 전공,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의 역량기반모델링, 교육품질 성과 환류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역량인증제의 성공적 도입의 기반 마련 및 체계적인 학생 역량 관리와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e-Learning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혁신적인 교육방식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활성화로 원격교육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LMS 서버 확대 구축, 사이버캠퍼스 모바일 앱 개발, 교육전산망 증설, 학내 WiFi 무선랜 확충 등 e-Learning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 강의중심 수업을 탈피하여, 모바일 캠퍼스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교육방식을 적용했다. 통합 학습 플랫폼 구축, Blended Learning, Flipped Learning 등 정규강좌 콘텐츠 개발, PBL기반 학습, Project 학습 등 다양한 교수법이 적용된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학과별 특성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실습기자재 확충 및 실습실 교육환경 개선, 대학 전체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투자가 이루어졌다.

지역-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 직업교육 선도

지역사회 발전과 취업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전문직업인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산업환경과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협력 체계 고도화, 취창업 지원체계 강화, 지역 산학연관 맞춤형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봉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추진됐다. 이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족회사 발굴 및 협력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학-산업체-지역사회가 원하는 실무중심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산업체 취업네트워킹 프로그램,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교원-산업체 연수 지원 등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 및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한층 강화했다.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활성화

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더 나은 성과를 얻고자 환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부터 교직원, 학부 · 학과 ·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학사제도 개선 등 상시 사업 개선 의견수렴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의 전면적 체질 개선을 위하여 교직원 및 재학생 의견수렴 간담회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공유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2021.03.03 교직원 의견수렴 간담회

▲ 2021.04.02 재학생 간담회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인간중심 기술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어 대학 변화를 통한 혁신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적극 수행할 것이다. <편집국장 김소현>

사이버강의 전용 앱 탄생?
새로운 모바일 전용 수강시스템 -제주한라대학교 모바일 LMS-

기존의 모바일로 강의를 듣는 데에 있어 불편한 점이 많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제주한라대학교는 이를 해결하고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모바일 LMS 앱을 개발했다.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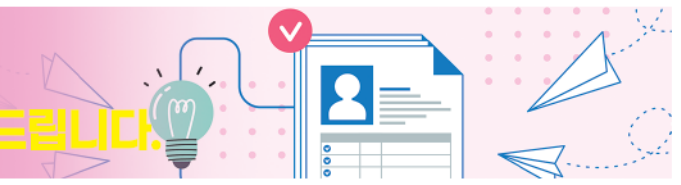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생들은 대부분 대면이 아닌 사이버로 강의를 듣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강의는 물론 과제까지 모두 학교가 아닌 집이나 카페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갔다. 강의를 듣는 방법은 학생마다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강의를 모바일이 아닌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듣는 것을 볼 수 있다. 핸드폰과 같은 모바일로 강의를 시청할 경우 화면이 안 보인다거나, 정체가 걸려 접속이 안 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로그인 시 제주한라대학교 앱 혹은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간 후 스마트 캠퍼스를 거쳐 사이버 강의실로 들어가야 해 번거로웠던 점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한라대학교 모바일 LMS 앱이 새로 나왔다. 플레이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전과 다르게 앱 로그인만 하면 바로 나의 강의실이 한눈에 보인다. 첫 화면에는 수강 중인 강의, 과제, 쪽지 항목 등이 모두 자동대로 세팅되어 나타난다. 사진 제출 같은 경우,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이메일로 보낸 후 컴퓨터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방식에서 핸드폰에서 찍기만 하면 바로 모바일로 올릴 수 있는 편리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무거운 노트북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핸드폰 하나로도 손쉽게 강의를 보고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 제주한라대학교 모바일 LMS 앱

강의를 듣기 위해 무거운 노트북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가벼워진 LMS 앱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수습기자 김채리>

자기소개서 아직도 혼자서 힘들게 써?
취업 시 중요한 자기소개서 작성요령과 첨삭, 면접을 도와드립니다.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자기소개서라는 커다란 장벽에 막히는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취업에 소극적일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자기소개서 작성을 도와준다는 친절한 우리학교 속 공간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제주한라대학교는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자기소개서를 쉽게 작성하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받을 시 매우 고가인 점을 생각해보면, 학생들에게 취 · 창업센터는 매우 좋은 도구이다.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위치는 예관 1층(도서관 1층)에 있으며, 평일 09:00~17:00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방학 기간에도 이용 가능하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전화 (064)741-7529 또는 방문하여 예약 후 상담이 가능하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졸업생들도 사용이 가능하다.

무엇을 해주나요?

취 · 창업센터에서는 진로 상담 및 취업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다면 내용 첨삭을 도와주기도 한다. 상담실 내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 작업 및 정보 검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상담과 자기소개서 작성을 다 하고 나면 취 · 창업센터는 필요 없는 것일까? 아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이 다 되었다면 그때부터 모의 면접을 시작해야 한다. 면접 시 필요한 정장을 대여해주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점이 있을까.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기소개서는 기업마다 원하는 방향과 목적이 달라 기업을 잘 이해하고, 기업 욕구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경우 기업 이념, 목적 등에 있어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에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통해 가고자 하는 기업에 맞춤형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

면접의 경우 관심 분야 외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하거나 실수를 하기 쉽다. 그러한 실수는 자신감 하락으로 연결되고 이후 면접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면 면접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많이 해보는 것이다. 취 · 창업센터에 전문 상담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중요한 핵심만을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아직 1학기인데, 벌써 준비해야 할까요?

취업 시즌이 되어 준비하다 보면 조급한 마음에 목적과는 다르게 작성되는 경우도 많으며,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취업 시즌에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첨삭 및 모의 면접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힘든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급하게 준비하다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취 · 창업센터에서 진행되는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받는 물리치료과 김ㅇㅇ 학생은 "처음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잘 썼다고 생각하며 만족했었다. 조금은 우쭐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이 끝난 후 자기소개서를 다시 보니 부끄러웠다. 마치 초등학생이 쓴 글 같아 얼른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 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길을 혼자 힘들게 가지 말고 취·창업센터를 이용하여 지름길로 가는 것은 어떨까?
제주한라대학교 학생들 모두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 코로나를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희망한다. <수습기자 김정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언제나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누는, 심리적 지지자가 되겠습니다."

'대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졸업하고 나서 뭐 하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것이다. 제주한라대학교는 입학에서 졸업까지 우리 대학 학우들의 행복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학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확히 어떤 곳인지 알아보자.

대학 입학과 동시에 중 · 고등학교와는 다른 대학생활에 선뜻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넓어진 대인관계에 있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학생, 심리 ·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들은 주목해보자.

제주한라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우리 대학 학우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상담센터는 대학생활적응도 검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상담을 제공하고, 진로탐색 검사와 전공분야별 직업탐색을 위한 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교육 및 특강도 제공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전문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심층적인 상담을 하고 있다.

▲ 학생상담센터 CHU Changing 진로 · 심리상담 지원 시스템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싶어요!

개인상담은 혼자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전문가와 1:1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가는 과정이다. 학교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학교생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인간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상담이 가능한 영역은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 학습 및 진로, 성격 및 습관, 정신건강 등이 있다.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니 걱정할 필요 없으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을 신청해 보자.

집단상담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집단상담은 비슷한 관심과 문제를 가진 다른 학생들이 함께 모여 힘을 합해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한라생활 길다지기(5-way) 프로그램'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년별, 단계별, 문제유형별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재학생의 학교적응 및 자기성장 지원, 전공분야 진로설계, 심리 · 정서적 문제의 예방과 치유, 자기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대학생활 디딤돌 프로그램'은 위기학생 적응지원 프로그램으로서 개인적인 문제로 대학생활 적응 위기에 직면해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꾸준한 관리와 적응을 지원한다.

학생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00~오후 5:00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및 예약한 후 상담이 이루어지니 이를 참고하여 착오 없이 이용하자.

학생상담센터에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뿐만이 아닌, 나에 대해 더 알고 이해하고 싶을 때,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싶을 때,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을 때도 방문할 수 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고민은 나누면 반이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방문해보는 것이 어떨까? <대학부장 강서경>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제는 장소 불문?

가정에서는 부모가,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하다.

세월이 점차 흘러감과 동시에 어느새 아동학대라는 주제로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사회적 이슈로 커지면서 어느새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 가정 내에서는 물론이고 어린이집까지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 아동들은 눈물에 지쳐갔다. 과연 학대의 영향은 어디까지 미칠지 알아보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전부터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사례가 많았다. 2020년 8월 국내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중에서 부모가 76.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동학대는 계속해서 발생하였지만, 수면위로 드러나는 일은 간혹가다 발생하고 다시 잠잠해지길 반복했다. 그러던 중 2020년 한 프로그램에서 입양모와 입양부의 지속적인 학대에 의해 발생한 '정인이 사건'과 '조카 물고문 사건'이 다뤄지면서 수면 아래 있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나타났다. 이 사건을 시점으로 끊이지 않는 가정 아동학대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물론 정부까지 슬픔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인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것도 잠시 지난 2월 구미에서 3세 여아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3세 여아는 집에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미라로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아동 살인 사건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처벌을 마련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아이의 고통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남아 불안장애 증세로 이어진다. 지난 3월 제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원아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아동들은 1세~2세밖에 되지 않는 원아 13명이고 이 중에는 원장의 손녀와 장애아동이 포함되어 있다. 8일 제주 경찰청에 따르면 교사 5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 어린이집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다. 교사들은 원아를 밀치거나,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밥을 먹는 도중 식판을 빼앗는 등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행했다.

사망한 피해 아동들을 위한 협회

피해 아동들을 위해 만드는 법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늘로 소풍 간 아이를 위한 모임'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사망한 피해 아동들을 위한 일을 하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라는 협회이다. 이 협회는 시민단체로서 아동학대를 추방하고 아이가 존중받고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협회에서 실행하는 활동에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방지를 위한 사진전, 국회에서 여는 토론회 참여, 아동학대 주요 사건에 대한 서명운동, 간담회 등이 있다.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하는 1인시위 사진

아동학대는 심한 경우 아이들의 목숨까지 빼앗아 갈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로 인해 몸에 남은 상처는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고스란히 남는다.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본다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일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를 기도해 보자.

<수습기자 김혜진>

동양인 인종차별 이대로 괜찮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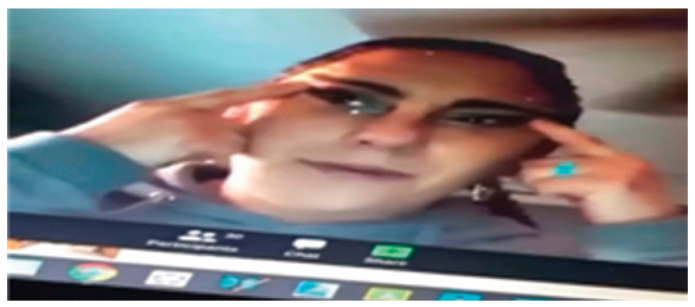
인종차별,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한 이후 동양인 혐오 범죄는 급증했다. 피해자 비율은 중국계가 42.2%로 가장 높고, 한국계가 14.8%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동양인 인종차별 사건·사고로 칼부림, 구타, 언어폭력, 최루가스 분사, 침 뱉기,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인종차별 사건·사고들과 함께 근절하기 위한 노력까지 알아보자.

동양인의 눈 모양을 조롱하는 '찢어진 눈'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그랜트 유니언 고등학교의 스페인어 및 진로지도 교사인 '니콜 버킷'은 지난달 25일 온라인 화상 강의 중 '눈찢' 포즈를 해 보였다. 그는 이후 논란이 되자 과거 유행했던 인종차별 장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비난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이후 살해 협박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의에서 버킷은 손으로 자신의 눈꼬리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며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면 중국인, 아래로 내려가면 일본인"이라며 "수평으로 찢어진 눈인 경우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버킷은 영미권의 구전동화인 '중국, 일본, 더러운 무릎'(Chinese, Japanese, Dirty Knees)의 인종차별적인 면을 설명하기 위해 해당 자세를 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동양인의 눈 모양을 조롱하는 비하 포즈

무차별 폭행

미국 뉴욕의 지하철에서 한 흑인 남성이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이 자행되는 동안 주변에는 다른 승객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중간에 환호성도 내질렀다. 폭행 영상은 트위터의 '아시아던' 계정을 통해 확산됐고, 영상은 온라인에서 현재 100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6천 회 가까이 공유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갑자기 폭행을 당하는 등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확산되면서 공포감에 간단한 외출조차 못 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topAsianHate

3월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희생했다. 이 사건이 중국인 등 동양인을 표적으로 한 증오 범죄라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연쇄 총격 사건 이후 시작된 동양인 인종 차별 금지 운동 '스톱 아시안 헤이트'에 국내외 유명 한 국계 미국인 인사와 케이팝 가수들이 SNS에 글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방ㅇ소년단이 공식 트위터에 'Stop Asian Hate'를 해시태그로 붙인 뒤 한국어와 영어로 "인종차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 방ㅇ소년단 SNS 글 전문

판례를 보면 많은 동양인 인종차별이 아주 심각한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동양인들은 자신들이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하루하루 불안감과 걱정에 살고 있다. 하루빨리 동양인을 향한 인식이 개선되어 차별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수습기자 현수영>

제주 4·3사건 제73주기, 잊지 못할 제주의 역사

제주에 구석구석 묻어있는 대한민국의 아픔

제주의 '봄'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꽃이 떠오르는가? 4월, 제주에서는 빨간 동백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동백꽃은 제주 4·3사건을 상징한다. 올봄, 우리나라선 따뜻한 평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까.

제주 4·3 사건의 진상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일본이 패망한 뒤 일본에 살고 있던 6만여 명의 제주 도민들이 제주로 귀환했다. 제주도는 급격한 인구변동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 실업난 등이 생겨나 큰 혼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제28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제주 도민들이 관덕정 앞으로 모여들었다. 기념식이 끝난 뒤 한 어린아이가 경찰이 탄 말에 차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경찰은 아무 대처 없이 지나갔고, 이에 화가 난 일부 도민들은 경찰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는 4 · 3사건의 시발점이었다.

이에 경찰들은 아기를 업고 있던 엄마, 노인, 학생 등 시위 주동자들이 아닌 자들에게도 가리지 않고 총격을 가했다. 화가 난 군중들은 공무원, 학생, 상가 등 파업을 통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지만, 미 군정은 파업에 참여한 도민들을 처벌하며 억압했다. 이에 무장봉기를 시작해 5.10 선거가 무산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는 제주에 군 병력을 늘리고 계엄령을 선포해 마을에 불을 지르고 무분별한 학살을 일삼았다.

이 사건으로 최대 8만 명이 희생당했으며 희생자들은 빨갱이라는 누명을 피해 오랜 세월 숨어지내야 했다.

▲ 불타는 오라리 사진

4·3 특별위원회 고현수 의원을 만나다

▲ 고현수 의원님과 찍은 사진

고현수 의원은 현재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 · 3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최근 2021년 2월경 '제주 4 ·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도록 힘쓴 인물이다. 그는 인권운동가 출신으로 인권 및 사회복지를 위해 지난 25년 가까이 활동해왔다. 우리는 일명 제주 4 · 3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도의회에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1. 2000년 공포되었던 일명 '제주 4·3사건 특별법'과 올해 개정된 특별법의 차이점은?

A 1. 2000년 개정되었던 특별법은 4 · 3에 관한 진상조사가 주된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유족 및 희생자를 발굴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4 · 3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특별법은 크게 두 가지에 집중하였는데, 첫 번째는 재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때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받은 수형인의 무죄 주장을 고려해 명예회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폭력으로 인해 무고하게 피해를 받은 희생자 및 유족에게 배보상을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Q2. 특별법 개정 및 시행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은?

A2. 4 · 3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4 · 3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의견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민주화 항쟁과 민주화의 순환사로 보는 역사적 판단이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제정이 정치적으로 다른 시각을 아울러 4 · 3사건에 대한 해결을 목표로 나아간 것이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큰 한 발짝을 내디딘 것으로 봅니다.

Q3.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층이 '4·3사건'과 관련하여 취해주었으면 하는 태도 혹은 활동이 있나?

A3. 저는 역사의식이 없는 청년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슬프고 아픈 역사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 · 3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역사적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4 · 3의 중점은 '잊지 말자'입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을 시에 용서는 선택이지만, 역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역사적 자의식을 가져 이를 역사적 문화 활동으로 승화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 · 3평화공원에 정기적으로 찾아가 살펴보며 비석을 닦아주고, 유적지에 방문하여 동백꽃 하나 놓아주는 등의 사소한 활동이라도 문화로 발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4. 이번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제주가 '진정한 봄'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하는데, 고현수 의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봄의 의미는?

A4. 역사적으로는 아직 진정한 봄에 도달하지 못하였는데, 저는 제주 4 · 3의 완전한 해결이 그 도착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도착지를 향하는 과정으로, 희생자 및 유족들을 찾고 배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제주 4 · 3사건의 이유를 찾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직 4 · 3사건의 성격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정확히 민주화운동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제주 4 · 3은 뒤에 정확한 명칭이 붙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를 내려야 완전한 봄에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5. 마지막으로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 혹은 제주 한라대학교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짧고 굵은 한 마디는?

A5. 제주도민은 단 한 사람이라도 4 · 3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주 도민의 일원으로서 4 · 3의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한 모든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제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

제주 4·3평화공원 내 위치한 기념관	제주 북촌 너븐숭이 4·3 기념관	제주 곤을동 4·3 유적지
제주 4·3 기념관은 4·3의 역사를 담은 그릇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4·3의 역사적 진실을 기록한 상설전시실과 특별전시실, 기획전시실, 영상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촌리 주민 학살사건 때 희생당해 임시매장된 어린아이들의 무덤 20여 기가 남아 있어 '아기 무덤'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촌은 4·3사건 당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곳이다.	곤을동은 7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마을이었지만 4·3사건으로 인해 사라져 버렸다. 1949년 곤을동 주민들을 전부 모이도록 해 불태워 인적이 끊긴 후 지도에서 지워진 마을이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과 같다. 70년이 넘도록 이름조차 지어지지 않은 4·3사건, 아무런 글자 없이 세워진 백비에 이제는 글자가 새겨지길.

<홍보부장 조수빈, 편집국장 김소현>

광주가 미얀마에게
미얀마 국민들에게 봄을 되찾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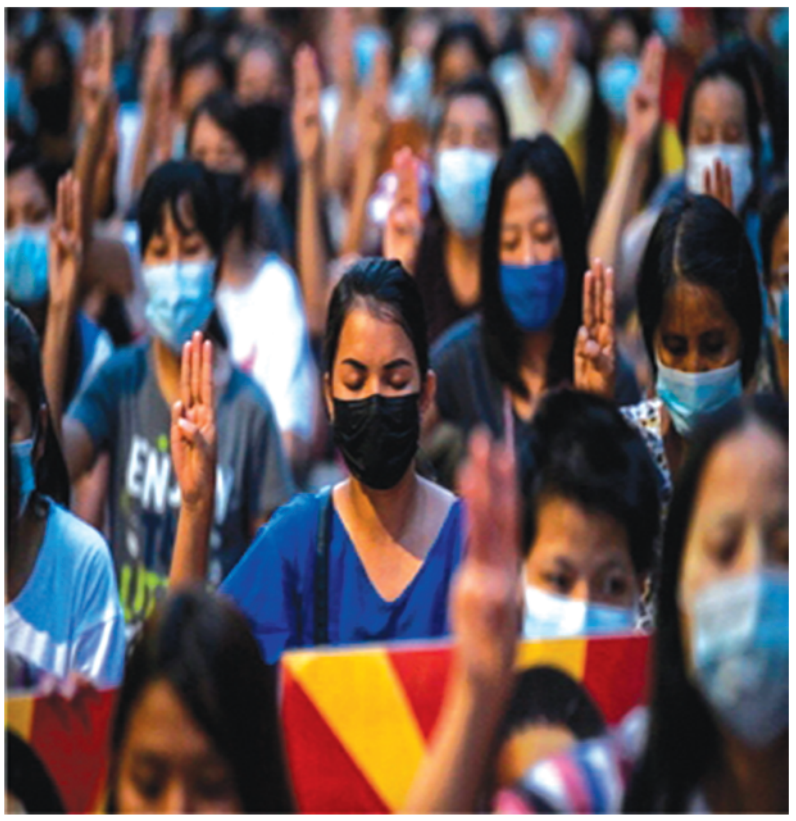
지난 '8888항쟁'에 이어 미얀마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시위운동이 또다시 일어났다. 군부 세력의 국민 탄압은 가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사상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41년 전 우리의 아픈 역사 '5.18 광주 민주항쟁'과 닮아있다. 현재 미얀마의 민주시위와 한국의 80년대 광주를 떠올리며 비교해보자.

미얀마 무력진압 경고에도 '평화 시위'

지금 미얀마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1일 새벽,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2020년 11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아웅 산 수 치가 이끄는 NLD(민주주의 민족동맹)에서 압승하자 입지가 좁아진 군부에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였지만, 선관위는 증거불충분으로 군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군부는 2월 1일 국회에서 민선 정부 2기 출범 시작 전에 아웅산 수 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쿠데타에 대항해 미얀마 국민들은 하나둘씩 거리로 모여 세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군부의 유혈 진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2222 시위는 시작되었다. '22222시위'는 1988년 8월 8일 민주화를 요구했던 '8888항쟁'을 본떠 "2월 22일 오후 2시에 모이자는" 뜻이 담겨 있으며 미얀마 전역에서 역대 최다 규모의 미얀마 국민들이 거리를 메우고 군부독재 타도와 아웅 산 수 치 국가 고문을 외쳤다. 군부는 계속해서 실탄을 쏘는 등 강도 높은 국민 탄압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시위로 인한 사망자는 55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미얀마 국민들은 현시점까지 그저 맨몸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며 저항하고 있다.

현 미얀마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면서 국가별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연대하고 교류 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제제를 펼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용납할 수 없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고위대표), "우리는 버마(미얀마) 시민 편"(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미얀마를 지지하게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불교계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오체투지에 나섰고, 광주에서는 미얀마 광주 연대가 발족했다. 정부에서도 1차 대응조치로 최루탄과 같은 군용물자의 미얀마 수출 금지를 내리고 재한 미얀마인들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 연장 등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 쿠데타 반대 시위 모습

'5.18 광주 민주항쟁'을 떠올리며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보고 있으면, 광주의 '5.18 민주항쟁'이 떠오른다. 당시 12.12 쿠데타로 군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다음 날인 5월 18일, 광주 대학생들의 시위 진압에 공수부대가 전격 투입됐는데, 대북 특수작전 업무로 훈련된 공수부대가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 진압에 동원된 것이다. 투입 첫날부터 공수부대의 진압은 무자비했고 이날의 강경 진압으로 두 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5월 21일 새벽, 광주역 인근에서 처참하게 버려진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된다. 사인은 총상과 구타였다. 분노한 10만 명의 시민들이 전남도청 앞에 집결하였지만, 시민들 앞에서는 실탄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있었다. 시민들은 계엄군의 사과와 철수, 그리고 연행된 시민 석방을 요구했지만, 계엄군은 철수를 거부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했다. 이날의 발포로 40명 이상의 시민들이 사망했다.

광주시민 사회는 6일 오전 5.18 기념 재단에서 군부 재단에서 '미얀마 민주항쟁 지지 긴급 간담회'를 갖고 '5.18 광주 민주항쟁이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5.18 기념 재단, 5.18민중항쟁 41주년 행사위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인권평화재단, 아시아 여성 네트워크, 광주 NCC, 광주 불교연합회, 광주 외국인복지센터, 광주민미협, 광주 거주 미얀마공동체 등은 미얀마 현지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천 운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서명서에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광주 5.18운동은 미얀마 1988년 8월 8일 8888항쟁의 원동력이 되었고, 2021년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염원에 불을 당겼다"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때까지 연대하고 공동행동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광주시민단체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8일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원할 연대기구를 구성해 국제사회에 지지를 촉구하고, 민주 세력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들은 우선 미얀마 민주항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지속해서 발표하고, 유엔의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10일 5.18민주광장에서 냄비 등을 두드리며 악귀를 쫓는 미얀마 풍습인 '딴봉띠' 집회를 열었다.

▲ 민주화 운동을 비교하는 사진(좌:광주 민주항쟁, 우:미얀마 민주항쟁)

▲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딴봉띠' 집회

미얀마의 민주화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1988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으나 군부는 계속해서 현재도 권력을 쥐고 있다. 결국 민주화를 갈망하는 외침이 2021년이 된 지금 다시 들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군부에 맞서 민주화를 외쳤던 역사를 가진 만큼 민주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관심을 가져보자.

<기획부장 양희정, 수습기자 김재은>

이게 국내 브랜드라고?

얼핏 보기에 외국 브랜드 같은 국내 브랜드

한복과 김치에 이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동북공정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것을 알리고 지키기 위해 국내 브랜드를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국적인 브랜드명으로 인해 오해를 받는 '국내산' 브랜드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MLB

국내 브랜드가 해외 유명 스포츠, TV 프로그램 등의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로고로 이용하는 일은 국내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그것이 국내 브랜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힘든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MLB'이다. MLB는 국내 브랜드 에프엔에프가 1997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MLB로부터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개장한 의류 브랜드이다.

MLB의 제품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팀의 로고가 박힌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인기 제품으로는 로고가 박힌 볼캡 모자, 바람막이, 빅볼청키 운동화 등이 있는데, 이들은 10대와 20대에게 특히 더 인기가 있다. 그 이유로는 대체로 활동적이며, 간단하고 편한 디자인으로 젊은 세대의 패션과 편리성에 잘 부합하는 점을 들 수 있다. 거기에 더해 로고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허전할 수 있는 패션의 완성도까지 높이니 이것이 인기의 비결이라 말할 수 있다.

▲ 로고가 박힌 빅볼청키 운동화

탐앤탐스(TOM N TOMS)

카페는 모든 세대가 친목, 학업, 휴식의 목적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현재도 많은 사람이 찾는 장소이다. 국내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카페로는 '탐앤탐스(TOM N TOMS)'를 쉽게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인 '스타벅스'의 영향인지 탐앤탐스 역시 외국 브랜드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탐앤탐스는 2004년에 최초 개장된 엄연한 국내 브랜드로 현재 국내에서 400여 개의 매장이 운영 중이며 해외에서도 60여 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다른 카페와 차별화된 점을 꼽자면 특유의 고풍스러운 목제 인테리어와 아메리카노 한정으로 제공되는 리필 서비스(1번 가능)를 들 수 있다. 결정적으로 24시간 개장을 하고 있어서 원한다면 매시 매분 언제나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카페 탐앤탐스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느낌의 수입브랜드 카페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장수' 브랜드로 대중성과 친근함이 가득한 '탐앤탐스'를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 탐앤탐스

애터미(ATOMY)

현재 많은 사람이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유명세가 높은 치약, 립밤, 클렌징폼 등의 외국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도 외국 제품들과 견주었을 때 품질이 뒤지지 않는 제품이 있다. 그 브랜드가 바로 애터미다. 얼핏보면 어느나라 제품인지 분간이 잘 가지 않지만, 애터미는 2009년에 설립된 자랑스러운 국내 브랜드이다. 2021년, 현재에는 18개국 국가에 진출했으며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애터미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그리고 가정용품까지 약 400여 가지의 다양한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중 인기가 많은 제품을 꼽으라고 하면 프로폴리스 치약을 꼽지 않을 수가 없다. 애터미의 프로폴리스 치약은 200g 용량에 2,5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프로폴리스 성분은 치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애터미에서 질 좋은 KF94 마스크까지 판매하니,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생활용품을 쓰고 싶다면 '애터미'를 사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 애터미의 프로폴리스 치약

최근 중국에서 외국 기업 인수를 통해 몸집을 불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산품'과 '국내 브랜드'를 애용하여 국내 기업 육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어떨까?

<수습기자 김승운>

'탐나도'의 탐나는 이야기

제주 신의 어머니, 백주또

제주에는 농경신, 해신 등과 같이 마을마다 모시는 신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신들을 전부 통틀어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무려 삼백일흔여덟의 형제들이다. 이 수많은 '당신'들을 낳은 어머니는 누구일까? 제주 신의 어머니 '백주또'에 대해 알아보자.

▲ 백주또 석상

✚ 어머니신 '백주또'

백주또는 무속신앙의 원조로 일만 팔천 신들의 근원이며, 어머니신 이다. 그 이름의 뜻은 '백주'에 신을 뜻하는 '또'가 붙은 것으로 금백조, 백조, 백조할망, 백주할망 등으로 불린다. 농사와 가정을 돌보는 신, 백주또는 옛날 강남천자국의 백모래밭에서 솟아났다. 15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배필이 제주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강남천자국에서 제주도로 내려와 소천국과 결혼을 하게 된다.

✚ '백주또' 이야기

소천국과 결혼 후 사냥으로 먹고 살아왔던 백주또는 늘어나는 식구에 소천국에게 농사를 지을 것을 권유한다. 소천국은 농사짓기 알맞은 땅을 찾고, 소로 밭을 갈던 중 지나가던 배고픈 중에게 점심을 나눠주었다가 모두 도둑을 맞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천국은 배가 고파 밭을 갈던 소를 잡아먹는다. 소 한 마리를 잡아먹고도 배가 차지 않은 소천국은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 남의 소까지 잡아먹어 버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백주또는 소천국에게 남의 소까지 잡아먹은 소도둑놈이라며 땅과 물을 갈라 소천국과 살림을 나눠버린다.

✚ '제주 여성'의 원형

백주또의 이야기를 보면 과거 제주의 삶을 알 수 있다. 생활 형태를 수렵에서 농경으로 바꾸는 장면에서는 이때부터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남의 소를 잡아먹은 소천국에게 여성인 백주또가 먼저 살림을 가르자고 하는 부분은 제주 여성의 강인한 독립성과 생활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백주또는 모성적이나 동시에 결코 그것에만 매몰되지 않는 자립적이고 개체적인 여성이다. 이러한 백주또의 모습은 제주 여성의 원형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삶을 일궈나간 제주 여성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제주 신화는 그저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도민의 삶과 정신성이 담긴 우리가 지켜야 할 유산이다.
과거를 잊는 순간 미래는 사라진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길 바란다.

<수습기자 김민석>

가족영화 '미나리'

미국에선 골든글로브 수상작 한국에선 밋밋한 다큐

최근 해외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 '미나리'가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개봉 전부터 해외에서 쏟아지는 찬사와 호평으로 관객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지만, 국내 반응은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이와 같은 온도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화 '미나리'에 대해 알아보자

영화 '미나리'

영화 '미나리'는 픽션도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이삭 감독이 몸소 체험한 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이삭 감독은 척박한 곳에서도 뿌리를 내리며 군집을 이루는 미나리처럼 미국 내에서 끈질기게 살아가는 한인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에 담았다. 영화는 198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이콥(스티븐 연)의 가족이 이주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희망과 꿈을 품은 채 이주를 한 그들에게 현실은 절망적이었다. 황량한 벌판과 이동식 컨테이너가 그들이 가진 전부고, 아들 데이빗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할머니인 순자(윤여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데이빗은 처음으로 보는 낯선 할머니에게 '할머니 같지 않은 할머니'라는 말을 남긴다. 처음 보는 순자가 낯설고 순자가 가져온 미나리가 낯선 것이다. 이민자의 천국이지만 이민자에게 시련을 주는 나라, 미국. 그곳에서 제이콥의 가족은 미나리와 같은 존재다. 낯선 존재. 그리고 악착같이 살아남는 존재. 어디서도 잘 자라나는 미나리처럼 제이콥과 식구들은 고군분투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바람과 위험에 노출되는 것 또한 미나리인 만큼. 제이콥 가족의 일은 쉽게 풀리지 않고 사고에 직면하게 된다.

제이콥은 허허벌판 같은 땅을 일구어 꼭 큰 성공을 하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이웃인 폴과 함께 한국 채소 농장을 만든다. 이 모습은 새로운 땅에 이주해 열심히 산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 즉, '아메리칸 드림'사상 이민자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늘 반짝거리기만 할 것 같았던 아메리칸 드림이란 타이틀 뒤에 숨어있던 희생과 노력을 정이삭 감독은 이 영화에 담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이민자의 삶을 잔잔하게

영화를 보기 전 관객들은 이민자의 삶이라 하면 인종차별은 빠질 수 없는 키워드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타인과의 갈등은 크게 집중되지 않는다. 영화는 한국 할머니의 사랑과 가족 간의 갈등에 집중한다. 정이삭 감독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극복하려 했던 주요 장애물은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남는 방법이었지, 외부에 있는 공동체와 관계를 맺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인종차별은 분명히 존재했고 저도 끔찍한 일들을 겪었지만 돌이켜보면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게 더 어려웠어요."라고 말했다. 이민자의 고난을 부각하기보다 가정의 정착기를 따뜻하고 담담하게 그려낸 것이다. 미나리는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받을 정도로 미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다. 이 타이틀을 보고 미나리를 본 한국 사람들은 "이게 왜?"라는 반응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영화는 깨달음을 주기보다는 어디에도 소속을 못 느끼는 이민자들에게 소소한 공감과 위안을 주는 영화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을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이해하며 공감받고 위로받은 것이다.

영화의 막이 내리고 엔딩 크레딧이 나오기 시작하면 화면에선 한예리 배우의 목소리가 담긴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잔잔하게 들려오는 노래를 들으며 미나리의 정서를 느껴볼 수 있는 그 순간을 당신도 느껴보길 바란다.

<수습기자 정의림>

내가 만우절에 말이야~

내가 겪었던 그때의 만우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학우분들의 기억 속의 남은 즐겁고 재미난 추억들!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제주한라대 학우들의 만우절 이야기를 모아 보았다. 제주한라대 학우분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함께 봐보자

이 이야기는 중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만우절 날 어떤 남자아이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사귀자'는 장난 문자를 보내왔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핸드폰이 고장 나서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문자를 발송해도 그 상대가 누군지 보이더라구요 얼떨결에 상대를 알아버린 전 "너 000이지?" 라는 답장을 보내게 되었고, 또 얼떨결에 그 친구와 사귀게 되었어요. ,,,,며칠뿐이었지만요,,,,, P.S 잘 사니?...	중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 두 명에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는 장난을 친 경험이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저는 구글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입국 신청서를 찾아냈습니다. 이 입국신청서를 이용해 저는 만우절 날 온종일 친구들을 알차게 골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욕이란 욕은 다 먹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인 저의 장난으로 인해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수학 선생님을 속이기 위해 반 친구들과 장난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수업이 없는 척을 하기 위해 저희는 다른 반에 모두 숨어있었고, 저희 반장은 복도에서 선생님을 우연히 마주친 척 자연스럽게 "저희 수업 없는 거 아니었어요?"라는 대사를 내뱉었습니다. 저희 예상과 다르게 선생님은 "늦게 들어온 사람 태도 점수 감점이다"라는 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놀란 저희는 우르르 들어가 단체로 사과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만우절"이라고 외치시더라고요,,, 선생님에게 역으로 당했습니다,,,	가족끼리 나들이를 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났는데 마침 만우절이더라고요.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동생 핸드폰의 날짜랑 시간을 바꾼 후 "오늘 학교 가는 날이야!! 너 지각이야!!" 라며 동생을 계속 깨우고 급하게 챙기는 척을 했습니다. 이에 급해진 동생은 난리가 났습니다. 동생이 씻으러 간 사이 핸드폰의 날짜와 시간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동생이 나올 때 저는 [거짓말] 노래를 틀어놓고 열창을 했습니다.

때론 거짓말이 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만우절 날이라는 생각이 든다. 추억 속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4월 1일, 이날 단 하루이지 않을까?

<문화부장 성현아>